

광주 '젓은 소나기'... 대기 불안정 여파

영하 15도 찬 공기 상층 유입·지표 기온 25도 이상 총돌 광주 기상청 "소낙성 강우, 5·9·10월 등 간절기에 빈번"

최근 광주에 젓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이틀간 오후에 광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다. 이 중 12일 측정된 강수량은 조선대(동구 서석동) 6mm, 무등산(동구 용현동) 0.5mm였다. 나머지 5개 관측소(서구 풍암동, 남구 노대동, 북구 운암·오룡동, 광산구

용곡동)에서는 강수량이 측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동구 서석동과 용현동에만 비가 내린 건 아니었다. 관측소에 집계되지 않았을 뿐 오후 5시께 동구 학동과 북구 일대에도 소나기가 내렸으며 이외 지역에서도 짧은 시간 강하게 비가 내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광주기상청은 이같은 '소낙성 강우'의 이유로 '대기 불안정'을 꼽았다.

공기의 무게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 무거운 찬 공기는 하층으로, 가벼운 더운 공기는 상층으로 향하는데 이러한 공기 순환을 '대류(對流) 작용'이라 부른다. 그러나 최근 영하 15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대기 상층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지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위로 향하는 뜨거운 공기와 아래로 내려가는 찬 공기가 맞닿아 충돌하며 대기 불안정 상태가 돼 비가 내리는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해당 현상은 지형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지표면에 따라 가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뜨거운 공기가 산악을 타고 올라갈 경우 더 빨리 차가워지면서 수증기가 응집을 버티지 못하면 지상에 비로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무등산과 지리산 등 산지 일대에 일반적으로 인접 지역보다 많은 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소낙성 강우는 기존에도 종종 발생하던 현상으로, 5·9·10월 같은 간절기에 특히 빈번하다"며 "다만, 관측소 사이에 걸쳐 있거나 영역 밖의 지역에 내린 비는 강수량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재영 기자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자'

누적 방문객 1만6천명 돌파

광주 동구는 15일 "지난 한 달간 영화 '택시운전자' 콘셉트를 모티브로 한 역사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2023년,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자'를 운영, 누적 방문객 1만6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운행에 나선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 까지(평일·주말 포함) 600여명이 동구 관내 5·18 사적지 16곳을 경유하며 택시 투어에 참여하는 등 1만6천여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운행 한 달여 동안 이처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기성세대가 아닌 MZ세대들의 관심 덕분이었다. 실제 하루 평균 20~50여명의 방문객 중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호 기자



광주소방학교, 교육훈련관 개소
방교육훈련 시설을 갖췄다.

광주소방학교가 15일 오전 교육훈련관 개소한 가운데 광산구 부내 육원센터에서 소방관이 인명 구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관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전문구급교육센터 등 전문 소 /김애리 기자

송정상권 르네상스, '송정축제' 개최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야시장 등 다채

광주 광산구는 15일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송정역세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뉴트로 낭만 '송정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정축제는 '광주 송정역세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행사다. KTX 송정역 인근 1913송정역시장, 광산

로, 중남회, 송정리 향토떡갈비거리, 내상로 등 5개 상권의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광주 송정역세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이 주관한다. 축제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4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1913송정역시장과 광산로 일원에서 열리는 상권 특색을

살려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기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에는 1913송정역시장 쉼터에서 가요, 팝페라 공연 등 난장콘서트와 경품 증정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24일에는 오후 3-9시 1913송정역시장에서 광산로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미스트롯 출신 은가은, 미스터트롯 출신 류지광의 축하공연과 시민과 함께하는 노래 자랑, 댄스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문 /이윤근 기자

화한마당이 열린다. 이 외에도 40여명의 지역 상인, 판매상(셀러)이 참여하는 베틀시장(플리마켓)과 야시장이 운영되고 매직버블, 공예 약세사리 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거리도 제공된다. 강혜련 사업단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일정 및 시간은 우천 등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 송정역세권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단(062-942-8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근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18 해질 19:49
🌙 달뜨기 03:28 달지기 18:12

광주	맑음	17/32
목포	맑음	18/27
여수	맑음	19/26
나주	맑음	16/31
완도	맑음	18/29
구례	맑음	16/32
강진	맑음	16/30
해남	맑음	16/29
장성	맑음	15/30
보성	맑음	15/28
순천	맑음	18/29
영광	맑음	17/28
진도	맑음	16/27
흑산도	맑음	18/26
고흥	맑음	16/28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 빨래 50 🚗 세차 50 🏃 운동 80
모자 챙기세요 실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준비운동은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해 앞바다(북)	0.5-1.0	0.5-1.0
남해 앞바다(남)	0.5-1.0	0.5-1.0
남해 앞바다(동)	0.5-0.5	0.5-0.5
서해 앞바다(서)	0.5-1.0	0.5-1.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0:45	06:07
여수	07:40	01:40
녹동	08:13	02:52
21:01	14:36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6월 17일(토)	☀ (19/33)	☀ (19/31)	☀ (22/32)	☀ (20/34)	☀ (19/27)
18일(일)	☁ (21/33)	☁ (22/32)	☀ (23/28)	☁ (20/33)	☁ (20/27)
19일(월)	☁ (22/32)	☀ (22/32)	☀ (20/27)	☀ (21/30)	☁ (21/28)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남구, '봉선시장 주차타워' 이달 말 완공

주차 106면 확보...8월 말까지 시범 운영 뒤 9월 본격 가동

광주 남구 봉선시장 주차타워가 이달 말 완공돼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는 15일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과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오는 8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9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구는 상인들과 인근 거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

선사업' 공모에 응모, 국비를 확보했다. 같은 해 실시계획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31일 첫 삽을 떴다. 이 과정에서 국·시·구비 등 총사업비 47억원가량을 투입했고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를 설득,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봉선시장 주차타워는 지상 3층에 4단 구조로 차량 106대를 주차할 수 있다. 기존 주차공간 44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주성학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상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산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상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에 200여분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담양군내시장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청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